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 전복'

전북도,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 개최

전북도는 10일 광주시 IFA광주주남지 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국민참여단, 관계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했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서는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21년)을 수립한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수정계획(1차 2006년, 2차 2010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사회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북

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청 내 각 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발전방향 수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호남권) 발전방향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이었던 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개성과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융합체 1번지 △글로벌 SOC 구축 안심 숲터를 4대 중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방향으로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문화·관광 기반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숲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 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림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합관광 거점 △서남권 방산·해양 역사 복합산업 거점의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지역 특성과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북교류와 대륙 철도연결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의 첨단화, 유희자원의 활용기회 제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생활 SOC 공간 활용 등 무분별한 발전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거점 육성으로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단절 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륙 복합물류체계 구축, 한서해·한동해·점점적 경제벨트 육성을 국토개발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새만금이 환서해 경제벨트 중심으로 부상하고, KTX, 공항, 항만 등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 등 전북도로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특권교육 중단 귀족학교 폐지

'특권교육 아닌 보편교육 추구가 정치의 본분이다' 상산교 수문장 노릇하는 정치 세력 규탄 기자회견이 10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조업 위기 대응 위한 뿌리산업 고도화 추진 필요"

전북연구원, 노후산업 단연계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진성)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주력산업 위기대응을 위하여 뿌리산업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최종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양원탁 박사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뿌리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3D산업(dirty, dangerous, difficult)으로 인식됨에 따른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며, 전북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위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전북의 뿌리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첫째, 전북 산업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핵심 뿌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독립산업군으로 육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둘째, 노후산업단지·스마트공장 보

급 사업과 연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공정 고도화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전북 뿌리산업은 노후산업단지 입주 비율이 높으므로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기피·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북의 뿌리산업은 수요 산업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역 맞춤형 고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거점인 전주와 뿌리기술센터가 위치한 김제를 중심으로 군산·완주(수요산업 대응), 익산(특새기술 발굴)이 연계된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고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 복원에 박차

토산어종의 생태계 보호와 고부가가치 어종의 수산자원량을 증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쏘가리 종자를 방류한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환경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고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 생태복원과 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11일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어린 쏘가리 3만 마리를 3개 수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쏘가리는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 관리 중인 우량쏘가리 친어로부터 수정란(2019.6.10)을 확보해 인공수정 시킨 후 1개월 정도 사육한 정장 3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방류 후 자연수계에서 3년에 20~50cm까지 성장하여 지역 농·어업인에게 약 9억 원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쏘가리는 토속어종으로서 배스나

블루길과 천적관계에 있어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의 퇴치에 도움이 되며, 핏감과 매운탕으로 즐겨 찾는 고급 어종으로 민물고기 중 판매가격이 높아 농·어업인들의 소득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민물고기이다.

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외래어종으로부터 토산어종의 생태계 보호 및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우량종자 방류와 함께 지역어업에 맞는 시험연구 기술보급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KIST 전북분원,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기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 정형수 박사팀은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전영시 교수팀, 한국화학연구원 김운호 박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

는 원천 기술인 그래피틱 카본 나이트라이드(graphitic carbon nitride)의 액정상(liquid crystal phase)을 세계 최초로 발현하고 섬유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

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수소에너지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우리 손으로!

전북도,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 개최

전북도는 10일 김제 용지 지역에서 농식품부, 김제시, 축산환경관리원, 전주김제연주축협, 김제시 한돈협회, 지역 축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맞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가의 자율실천 의지를 높이고, 환경개선 분위기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캠페인에는 지역 축산농가는 물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김제 용지지역에 소재한 축산시설 전반에 대한 내외부 청소와 환경정리, 분뇨처리시

설 미생물 살포 및 소독,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 등 축산환경 개선 활동과 기술 지도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 5월 도내 축산생산자 단체장 100여명이 참여한 '축산환경 개선 결의대회' 개최 이후 지역별로 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축산발집지역으로 금년도에 축산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김제 용지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의 실천과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아울러, 이번 캠페인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축산환경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전주김제연주축협 조합장, 김제시한돈협회 등 다수 기관에서 참여하여 캠페인에 동참, 가족분노 적정 처리 기술 등을 지도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었다.

도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은 이웃에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은 물론 가족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을 계기로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